

과제명	2016년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		
출장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정책 이슈 (저출산, 안전) 문제 등의 도전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주요 기관의 정책 사례 수집과 협력 방안 모색 ○ 일·가정 양립 정착의 핵심인 남성의 돌봄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독일 기관과 협력 방안 모색 통한 저출산 해소 방안 마련 ○ 시민안전교육의 성인지적 개선과 여성 중심 사업장의 안전 정책 발굴 우수 기관 협력방안 모색 통한 안전 정책의 선진화 방안 마련 		
출장기간	2016년 9월 10일(출국)~ 9월 21일(입국), 10박 12일		
출장지	오스트리아 잘스부르크, 독일 베를린, 도트문드		
세부일정	일자	내용	체류지
	9.10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국제공항 출발(12:15)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도착(22:05) 	
	9.12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auentreffpunkt Frauenberatung Salzburg(폭력 피해자 종합지원 센터), 9:00 - 12:00 - 면담자 : Mag. Elisabeth Walch, Mag. Dietlind Scharzenberger 	잘츠부르크
	9.13 (화)	○ 잘츠부르크 출발 →비엔나 경유 → 베를린 도착	
	9.14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milienzentrum Mehringdamm(가족센터 메링담), 14:00 - 17:00 - 면담자 : Manager Gertrud Möller-Frommann 	베를린
	9.15 (목)	○ 베를린 출발 → 도트문드 도착	
	9.16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uA(독일연방안전보건연구원) - 면담자 : Dr Andreas Süßmilch ○ DASA(안전보건전시장) - 면담자 : Gregor Isenbort(director) 	도트문드
	9.17 (토)	○ 도트문드 출발 → 베를린 도착	
	9.19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milienzentrum Fischerinsel(가족센터 피셔니즐), 14:00 - 16:00 - 면담자 : Coordinator Lena Schlor 	베를린

	<table><tr><td>9.20 (화)</td><td><div>○ Kita Kastanienallee(보육가족센터 카스타니에날리), 10:00 - 12:00</div><div>- 면담자 : Manager Christine Paschke, Deputy Humberto Hoffmann</div><div>○ 독일 베를린 출발 (오후 18:10)</div><div>○ 인천국제공항 도착 (21일 오후 15:00)</div></td><td></td></tr><tr><td colspan="3"> </td></tr></table>	9.20 (화)	<div>○ Kita Kastanienallee(보육가족센터 카스타니에날리), 10:00 - 12:00</div> <div>- 면담자 : Manager Christine Paschke, Deputy Humberto Hoffmann</div> <div>○ 독일 베를린 출발 (오후 18:10)</div> <div>○ 인천국제공항 도착 (21일 오후 15:00)</div>				
9.20 (화)	<div>○ Kita Kastanienallee(보육가족센터 카스타니에날리), 10:00 - 12:00</div> <div>- 면담자 : Manager Christine Paschke, Deputy Humberto Hoffmann</div> <div>○ 독일 베를린 출발 (오후 18:10)</div> <div>○ 인천국제공항 도착 (21일 오후 15:00)</div>						
출장자	이명선 원장						
지출비목	항공권 및 체제비: 240-D10-215(여비-국외여비)						
소요예산	14,818,088원						
보고서 내용 반영 여부	<div>○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지역 사회 돌봄 관련 기관 연계 모델의 다양화를 통한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방안 구체화하고, 여성의 경력 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및 여성친화도시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을 위한 대안적 사례와 사업 추진 매뉴얼 반영</div> <div>○ 양성평등 체감도 높일 수 있는 정책 의제 개발을 위한 돌봄 분야 노동자 및 다중 작업 수행하는 여성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및 감정노동 관련 독일 정책 이슈 분석과 KWDI Brief 기고 등을 통한 연구 성과 확산</div>						

주요 정책 이슈(저출산·안전) 유관기관
협력기반 구축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16. 9. 10. ~ 9. 21.)

2016. 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출장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명선 원장

□ 출장 국가 및 도시 : 오스트리아 잘스부르크, 독일 베를린, 도트문드

□ 출장기간 : 2016년 9월 10일(출국)~ 9월 21일(입국), 10박 12일

□ 출장목적

○ 사회 변화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과 안전 문제 등의 도전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기관의 정책 사례 수집과 협력 방안 모색

- 주요 국정 과제이자 양성평등정책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출산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에 기반한 독일의 새로운 육아지원 모델 추진 사례 분석과 프로그램 연계 방안 협의

• 2000년대 이후 남성의 돌봄 참여를 상징적으로 강조하면서 추진된 가족센터(Familienzentrum) 추진 배경과 성과를 분석하고 돌봄에서 여성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정책 환경 변화 동력 모색

•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돌봄 기관 연계 추진과 지역기반 공동체 활동 공간인 마더센터(Mutter Kind)의 확대 경험을 분석하여 한국의 육아지원 인프라 변화 방안 모색

•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방안 관련 공동 연구 가능성 협의

- 성인지적 안전 정책 지평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관계자 및 프로그램의 연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되는 독일의 안전 교육과 오스트리아 폭력 피해자 지원 사례 분석과 주요 사업 내용 공유 방안 협의

- 이민자, 장애인을 포괄하는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오스트리아 폭력피해자 종합지원 센터(Frauentreffpunkt Frauenberatung Salzburg) 운영 체계를 분석하여 다양한 폭력 문제에 대한 종합지원 서비스 모델 발굴 모색
- 다양한 활동 공간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 안전보건전시장(Deutsche Arbeitsschutzausstellung der Bundesanstalt für Arbeitsschutz und Arbeitsmedizin)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에서 추진되는 시민안전교육의 성인지적 개선 방안과 여성 중심 사업장의 안전 정책 모색
- 돌봄 서비스 여성 근로자 안전 정책 관련 공동 연구 가능성 협의

□ 주요 논의 사항

방문기관 및 연담자	주요 논의 사항
○ Frauentreffpunkt Frauenberatung Salzburg (폭력피해자 종합지원 센터) - Mag. Elisabeth Walch, Mag. Dietlind Scharzenberger	- 일반 여성, 이민자, 장애인을 포괄하는 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 오스트리아의 여성과 소녀 상담센터 네트워크 및 FFS와 연구 협력 방안
○ Familienzentrum Mehringdamm (가족센터 메링담) - Manager Gertrud Möller-Frommann	- 마더센터의 가족센터 전환 과정과 남성의 육아 참여 지원 프로그램의 특성 - 지역주민 개방 프로그램 현황과 성과 - 지역사회 기관연계 및 남성 육아참여 모델 공동 연구 추진
○ Familienzentrum Fischerinsel (가족센터 피셔니즐) - Coordinator Lena Schlor	- 이민자 그룹과 원주민 그룹 연계 돌봄 지원 프로그램 성과와 남성의 육아 참여 지원 프로그램의 특성 - 일·가족 양립 지원에서 NGO와 정부 연계 프로그램의 효과
○ Kita Kastanienallee(보육가족센터 카스타니에날리) - Manager Christine Paschke, Deputy Humberto Hoffmann	- 유치원과 가족센터 연계 운영과 남성의 육아 참여 효과 증대 방안
○ BAuA(독일연방안전보건연구원)	- 여성 다수 근로 사업장 안전 연구 현황

- Dr Andreas Süßmilch	- 장시간 근로와 사업장 안전 및 돌봄 서비스 여성 근로자 안전 정책 공동 연구 추진 방향
○ DASA(안전보건전시장) - Director Gregor Isenbort	- 체험형 시민안전교육 추진 특성과 여성 특화 안전 교육 개발 방향 - 여성 다수 종사 업종(서비스업 등) 작업장 안 전 프로그램 운영 협력 방안

□ 주요 일정

일자	내용	체류지
9.10 (토)	○ 인천국제공항 출발(12:15)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도착(22:05)	
9.12 (월)	○ Frauentreffpunkt Frauenberatung Salzburg(폭력피해자 종합지원 센터), 9:00 - 12:00 - 면담자 : Mag. Elisabeth Walch, Mag. Dietlind Scharzenberger	잘츠부르크
9.13 (화)	○ 잘츠부르크 출발 → 비엔나 경유 → 베를린 도착	
9.14 (수)	○ Familienzentrum Mehringdamm(가족센터 메링담), 14:00 - 17:00 - 면담자 : Manager Gertrud Möller-Frommann	베를린
9.15 (목)	○ 베를린 출발 → 도트문드 도착	
9.16 (금)	○ BAuA(독일연방안전보건연구원) - 면담자 : Dr Andreas Süßmilch ○ DASA(안전보건전시장) - 면담자 : Gregor Isenbort(director)	도트문드
9.17 (토)	○ 도트문드 출발 → 베를린 도착	
9.19 (월)	○ Familienzentrum Fischerinsel(가족센터 피셔니즐), 14:00 - 16:00 - 면담자 : Coordinator Lena Schlor	베를린
9.20 (화)	○ Kita Kastanienallee(보육가족센터 카스타니에날리), 10:00 - 12:00 - 면담자 : Manager Christine Paschke, Deputy Humberto Hoffmann ○ 독일 베를린 출발 (오후 18:10) ○ 인천국제공항 도착 (21일 오후 15:00)	

1

폭력피해자 종합지원 센터(Frauentreffpunkt Frauenberatung Salzburg)

□ 일시 및 장소 : 2016. 9. 12 (월), 09:00 - 12:00, FFS 회의실

□ 외부 참석자 : Mag. Elisabeth Walch, Mag. Dietlind Scharzenberger

□ 주요 논의 내용

-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처분을 입법화하였으며, 센터는 Salzburg 주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으나 지역 내 전문가 그룹의 여성인권에 대한 공감대에 기반한 각종 자원 활동이 크게 기여하는 면도 중요함.
 - 일반적으로 폭력 피해자 지원은 사회복지사와 변호사 중심의 지원이 일반적이나, FFS에는 심리학자, 심리치료사, 금융전문가도 결합. 전문 컨설턴트 팀으로 활동함.
- 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폭력 피해자 역시 지역사회를 근거로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폭력 피해자 지원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카운슬링이 함께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여성 인권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함.
 - FFS 사례는 상담 받으러 온 여성 중 45%는 오스트리아 국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민 자들에 대한 각종 포괄적 지원 사업들이 부가된 계기가 되었음. 지역 기반 센터 활동은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기 보다는 지역 여성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함.
 - 장애 여성의 센터에 대한 공간적 접근성, 폭력 상황에 대한 위기 개입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과 지역사회 활동 지원에 대한 축적된 자료 구축과 상담에의 활용 또한 중요.
- FFS는 한국의 자녀 동반 보호시설 운영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오스트리아의 여성과 소녀 상담센터 네트워크에서 한국 사례를 공유할 것에 대해 제안함.

【FFS의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

○ 심리사회적 상담

- 개인 문제 : 문제분석, 변화 목표 수립 및 단계, 자신의 감정과 능력 인식
-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도한 요구 : 위기상황에의 개입과 지원
- 이혼 및 분리 상황 : 의사결정 지원, 두려움 (폭력, 굴욕), 제정적, 경제적 법적 및 행정 상황에 대한 상담
- 경제 : 상황분석, 금융청구 및 원조 · 지원
- 임신 : 임신 · 출산 준비 및 지역서비스 정보, 출산관련 지원 과 법적 문제 상담, 낙태

○ 빈곤

- 재정적, 경제적, 법적상황에 대한 상담

○ 취업상담

- 구직과 실업 : 현재 진단 및 일자리 정보 제공, 전략 논의
- 재취업 : 경력 경로 및 실업기간을 고려한 정보 제공, 교육기회 제공, 육아 지원 등
- 응용 프로그램 : 구직 서류 검토, 면접 연습(역할놀이 등을 통해)
- 취업 시 어려움 : 문제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 충돌 시 해결 전략 개발

○ 육아 상담

- 자녀 양육권 법적상담, 아이돌봄, 교육 및 입양, 위탁 상담/정보 지원

○ 가족생활

- 일가정양립지원, 커리어 상담,

○ 신체건강

- 의료시스템과의 연계 지원, 장애연금신청 상담, 영양상담, 장애, 성(피임, 낙태, 성적취양) 등 개별토론의 형태로 진행됨

○ 법률상담 : 이혼, 폭력, 재정 문제 등을 대상으로 함.

○ 소그룹 토의 및 세미나

- 성격, 정신 교육, 갈등관리, 왕따 다루기, 자신감, 번 아웃 방지, 문제해결 전략 등을 중심으로 운영.

- 건강, 빈곤(재정 지원과 취업 지원), 육아와 가정생활 등의 여성의 일상을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FFS 센터 운영 방식을 한국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여성과 소녀 상담센터 네트워크와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을 공유함.



2

메링담 센터(Familienzentrum Mehringdamm)

- 일시 및 장소 : 2016. 9. 14 (수), 14:00 - 17:00, 메링담 센터 회의실 및 가족 카페
- 외부 참석자 : Manager Gertrud Möller-Frommann
- 주요 논의 내용
 - 메링담 센터는 1976년 설립 당시에는 마더 센터로서 역할 하였으나, 2007년부터 Pestalozzi-Froebel-house의 재정적 후원을 통해 가족센터로 기능을 확대하여 활동하고 있음
 - 마더 센터(Mutterzentrum)나 가족 센터(Familienzentrum)나 센터와 참여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도와주는 경험을 한다는 점이나 센터를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하고 격려한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음. 함께 모이는 참여자들이 나이, 성, 인종 등의 다양성을 스스로로 존중한다는 철학은 변함없음. 그런 철학이 입구의 넓은 공간(가족 카페)과 개방성, 관계 맺기 활성화 등으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센터가 부모나 주민들을 고객이 아니라 참여자로 인식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

정을 정착시키고 있음.

- 가족 센터는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라는 국가적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었고, 아버지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그룹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더센터의 기능을 확대한 것임

* 베를린에 있는 34개 센터의 출발점이 다양하여, creativity center에서 변모하기도 하고, daycare center에서 패밀리센터를 겸하는 경우도 있음. 사회복지사가 패밀리센터에 일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음. 일반적인 유형이 결정되어 있지는 않고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연령대의 패밀리센터로 확장되고 있는 경향.

- 데이케어센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영유아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같이 놀이하고 체육, 음악, 미술, 요리하기 등 다양한 형태의 놀이문화를 형성해가도록 운영되는 특징

* 옆 건물에서 유료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부모가 오후 4시경에 옆 건물의 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데리고 패밀리센터로 와서 오후 6시까지 같이 놀이를 하다가 가는 경우 많음). 주당 2-3회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 아이 활동 시간 동안 엄마(주로 외국인민자)를 대상으로 독일어 교육도 추진

- 동반 부와 모의 비율은 7:3 정도이며,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조부모가 오기도 하지만 10% 미만이며, 기관 활동에 전반적 참여 정도는 떨어짐.

○ 부모와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주민에게 개방된 '가족카페' 운영이 메링담 센터의 핵심 기능임. 부모와 아이가 서로서로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공간적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에 심혈을 기울임.

- 독일 가족 센터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지만, 지역사회에 개방적이라는 특징과 공간의 중심에 모든 이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한다는 점이 중요함. 페스탈로찌 재단 지원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하는 특징.

- 가족 카페는 어린이, 부모, 교사 모두에게 서로를 배울 수 있는 학습 공간임. 부모와 교사가 아이들이 가족카페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 배우고, 교사가 어린이를 다루는 방법, 아이들과 부모를 다루는 방법 등등.

【메리담 센터의 가족카페】

- 개방 시간: 월~금(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까지)
 - 항상 개방된 공간을 유지하며, 연락 가능하고 아이의 놀이에서 동반할 수 있는 부모의 교육 보조가 됨. 보조자는 만약 필요하다면 아이들의 흥미를 지원할 수 있는 더 많은 자료를 가져 올 수 있고, 아이들도 가져올 수 있음. 다양한 음료와 먹을거리 제공됨
 - 다양한 부모-아이 그룹이 가족 카페 안에서 규칙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으며, 다른 부모들은 고정적인 모임 이전이나 이후에 카페를 방문
 - 가족 카페 일부에는 반개방 공간과 책장도 있어서 아이들과 부모와 함께 책을 볼 수 있음
 - 오후에는 아이와 부모가 등록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무료개방 교육 프로그램이 가족 카페에서 열림, 외부 방문자는 가족 카페의 놀이터를 사용할 수 있음
-
- 아버지들에게 자연스럽게 놀면서 자녀를 학습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남성 육아 참여에 대단히 중요함. 아버지와 자녀 놀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효과성 관련 연구들(센터에 재정 및 연구 지원 하고 있는 Pestalozzi-Froebel-house)을 공유할 수 있음.
 - 오픈 그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일 수 있는 프로그램 지속 개발하고 있음. 예를 들어, 페인트, 목공작업이나 과학 실험 또는 각종 게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 아내가 임신 중인 남편들에게 임신, 출산, 출산 후 일주일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특별코스과 아빠와 자녀들을 위해 이벤트행사, 소풍, 여행, 그밖에 여러 활동들(모형자동차, 모형축구경기테이블, 화살 던지기 판 등 여러 가지 남자들 놀이기구들, 아이와 함께 하는 요리모험, 아기와 아빠를 위한 체조 등) 그리고, 별거 이혼 등의 아버지 대상 정기적인 상담 프로그램
 - 영유아와 부모 중심 센터 운영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 거점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가족 스포츠 그룹(여성들을 위한 체육 그룹, 탁구 그룹, 소녀들을 위한 댄스그룹 등)을 만들거나 지역사회 내 문제나 이슈를 중심으로 자조 그룹(hoarding(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모으는 사람), 알콜중독, 약물중독을 위한 지지모임, 건선 포럼 등)을 함께 운영하는 등의 방법 활용 가능
 - 독립적인 기관 운영 목표를 가진 지역사회 기관들과 연계 협력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으나, 프로그램이나 행사와 같은 소규모 프로젝트들을 같이 하는 것부터 시작

하여 서로서로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음.

- 이웃 유치원과 부모가 가족 센터 방문하고, 가족들과 함께 공동 행사 개최하는 형식으로 유치원과의 협력
 - 터키어 및 아랍 출신 커뮤니티의 어머니들과 2011-2014년 프로젝트 "ternane의 아이들 기회" 행사. 때때로 외부 펀드 활용함
- 센터에서 50m 거리에 있는 Jovita 재단의 Kinderfreizeit과 함께 춤과 음악 교육 공동 기획하여 운영.
- 운영비용의 대부분이 지방정부에서 지불되고 있으며, 비영리 공공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보조하는 경우도 많음.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특정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공공에게 자금 모집이 이루어지기도 함
- 일주일에 제공하는 유료강의는 40여 과목. 대부분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서로 공유하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진행. 과목별 전문가에 의해서 진행되는 데, 전문가 중에 학부모도 많이 종사함.
- 과목비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2개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고, 하루에 1시간 내외의 유료강좌에 개별적으로 1.5유로에서 9유로까지 지불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50%-67% 정도의 할인율이 적용



□ 일시 및 장소 : 2016. 9. 19(월), 14:00 - 16:00, 센터 회의실

□ 외부 참석자 : Coordinator Lena Schlor

□ 주요 논의 내용

○ 부모-아동 그룹 활동 뿐만 아니라 이민 배경을 가진 복잡한 지역 주민의 통합을 위한 사회적 상호 작용 프로그램 운영됨.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이주민 간 교류 활동, 이민 여성과 소녀를 위한 Nähtätigkeiten(의류, 침구, 커튼 같은 일상생활 필요한 물품을 수선, 리폼하거나 때로는 제조하기도 함) 프로그램, 멘토링, 연극 교실을 통한 언어능력 향상, 이민 여성 대상 자전거 연습, 교통안전과 같이 현실적인 사회 적응이 가능한 프로그램 등등 참석자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감

- 이민자 그룹을 분리해서 운영하지 않지만, 이주여성 대상 자전거 연습, 교통안전과 같이 현실적인 사회 적응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추진함.

- 움직임이 매개로 한 활동에서는 언어가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굳이 분리 그룹을 운영할 필요 없으며 함께 부모-자녀 활동을 하는 것이 이민 배경을 가진 주민들의 통합력을 높일 수 있음.

- 최근에는 이주민뿐만 아니라, 난민 활동도 담당하고 있음(베를린정부에서 보조 받는 예산 83,000euro 중 23,000euro를 사용)

○ 부모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게 지원하고, 이웃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주는 것이 센터의 주요 활동 방향.

- 보육서비스에서는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가족 센터에서 다른 가족들과 격의 없이 만나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공유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한지를 직간접적으로 도움. 아동들도 다른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을 새로운 친구로서 만날 수 있는 기회 얻음

- 가족들이 일상생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도와주도록 격려하고, 다른 가족에게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문제나 가족의 범주를 넘어가는 문제에는 센터직원이

정부부문이나 전문가와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시도하고 있음.

- 가족 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은 일반적으로 센터차원에서 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지역 내 다른 가족 센터와 정기적 모임 통해 유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음. 하지만, 센터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Fischerinsel 센터는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극장무대와 다양한 의상을 활용하여 연극 활동을 진행함.
- 지역사회 공연 교육 센터(KREATIVHAUS) 활동을 하는 그룹이 센터 운영하기 때문에, 감각과 색상·소리·물질·움직임 등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연극적 놀이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아버지 참여에 크게 기여하였음. 독일 역시 여전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여성이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하지만, 움직임을 이용하고 게임과 같은 동적인 활동을 통해서 아버지의 놀이를 통한 돌봄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음. 특히, 놀이는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에게만 해당할 필요는 없으며 유아기의 놀이 그룹 또한 가능함.
- 아버지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아버지는 주중에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요일과 토요일에는 특히 아버지와 아동에게 개방하고, 토요일에 부모와 아동이 같이 스포츠, 놀이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일요일에는 오후 2-6시 사이에 가족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 * 아동들은 6시 이후에는 저녁식사를 하고, 7시나 8시 정도에는 자야하기 때문에 6시까지 통상적으로 운영하지만,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저녁에 1-2시간 정도 사용가능. 여름동안에는 오후 7시 개방하고, 일부 프로그램은 7시 30분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일·가족 양립을 위한 독일 기업의 근로시간 조정 문화】

- 예전에는 아버지가 일하고 엄마는 집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두 사람이 일하고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오후4시 이후에는 아동과 같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통상의 독일근로자들이 주당 40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기업에 따라서 다양하게 시간이 결정됨. 최근 30시간을 일하는 경우도 많아짐.
- 기업 문화가 근로 시간조정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데, 기업이 근로 시간 조정을 용인하지 않으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가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됨. 부모 모두가 아동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업정책 및 사회가치로 여기고 있음.

- 산파가 임산부들이 임신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토론하고, 출산과 아이를 위한 준비를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Fischerinsel 센터의 특징임. 산파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머무르고, 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수업을 이끌고 컨설팅을 진행함.
- 피셔니즐 센터 역시 센터 중심에 있는 카페 코코를 중심으로 각종 오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가족센터와 다세대주택 캠페인의 연계】

- 2006년부터 시작된 연방 정부의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BMFSFJ) 프로젝트는 여러 세대 간 교류 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운영됨. 보통 이 프로젝트는 주로 70-80%가 여성이 참여하고, 이민자 여성 또한 많음
- 다세대 주택 프로젝트와 센터가 긴밀한 연계 있음. 카페 코코의 오픈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요양원 거주자와 유치원 및 데이케어 센터 참가자가 함께 또는 따로 연극 활동

-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다세대 문화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 교류에 기여. 특히, 움직임과 놀이 프로그램은 모든 세대와 남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을 통합하는 기능
- KREATIVHAUS의 활동은 정부의 가족센터 지원과 만나서 다양한 연령과 계층 사업들로 확대되었고, 함께 돌봄을 매개로 이민자 그룹의 지역사회 통합도 증대되는 효과

과 큼

- 전액 정부보조로 진행되며, 인건비, 강사비용, 재료비등에 사용. 개설과목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어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주당 30시간의 센터장(센터 프로그램 만들고, 직원 및 방문 가족과 상담, 지역가족 센터 정기적 회의 참석), 주당 20시간의 파트타임 근로자, 주 1회 강사(10여명),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담사로 구성
- * 정부예산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인력이 상시 부족한 상황



4

카스타니에날리 보육가족센터 Kita Kastanienallee

- 일시 및 장소 : 2016. 9. 20(화), 10:00 - 12:00, Kita Kastanienallee 사무실
- 외부 참석자 : Manager Christine Paschke, Deputy Humberto Hoffmann
- 주요 논의 내용
 - 지역사회 내 난민 유입이 급증한 것에 대응하여 2016년 8월부터 보육시설 기능에 가족센터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기관. 사회복지사가 활동하는 특징을 갖

는 가족센터로, 가족 간 그리고 가족 내 관계에서의 문제를 찾아내서, 보육시설에서
는 다룰 수 없는 문제 해결을 시도함.

*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은 오전 6:30에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140여명
의 아동과 20명의 보육교사, 3-4명의 행정요원과 2명의 시설담당자가 있음.

- Kastanienallee 센터는 난민 출신 지역 주민들도 독일인과 같이 모여서 서로 소통
하고, 대화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습득한 독일어 실력을 배양하고 독일에서의 생활에
관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역할

- 공항근무자나 야간 근로자들을 위해서 야간까지 교사 중에 1-2명이 같이 운영되고
있음.

○ 보육 시설이 아이 활동에 대해서 전적으로 교사에게 운영을 맡기고 교사가 아동에
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부모는 시설 입소
초기에 아동의 적응을 위해서 잠시 머무를 수 있으나, 가족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면
서 부모가 함께 활동하고 아이들의 문제를 가족의 틀에서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한다
는 장점

○ 근로자의 근무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일하던 전통적인 시간에서, 다양한
시간대에서 일하게 되는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연한 접근이 필요
했음. 특히, 일하는 엄마들이 보육시설과 연계된 가족센터 내에서 다른 가족을 알게
되고 휴식도 취하면서 아동을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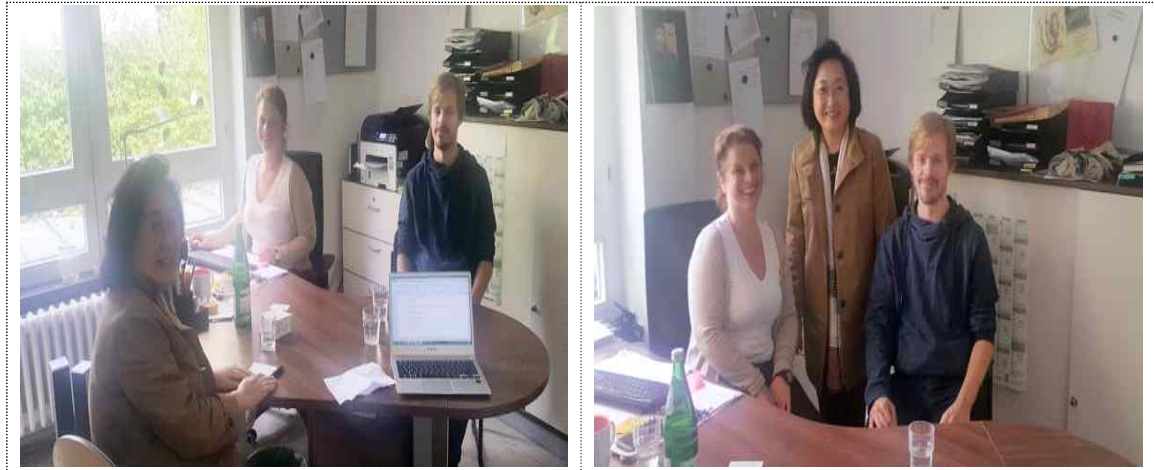
○ The Pestalozzi-Froebel-Haus 의 일원으로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음.

【The Pestalozzi-Froebel-Haus】

○ The Pestalozzi-Froebel-Haus는 1874년 설립되었으며, 사회 서비스 분야 여성 고용
의 전문화에 기여한 독일 직업 교육 지원 재단. 1874년 최초의 독일 유치원 설립에 기
여하였고, 돌봄과 육아교육 전문가로 여성을 양성하는 학교를 운영.

○ 여성의 사회교육 추진 기관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활동에 필요한 데이케어 센터
(Kindertagesstätten), 가족센터(Familienzentrum), 이들 센터에서 운영되는 각종 부모
자녀 그룹 활동, 가족 상담 등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병행하고 있음.

○ 청소년기 아동으로 관심을 확장하여 학교를 기반으로 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도 지원
하고 있음.



5

독일연방안전보건연구원

Bundesanstalt für Arbeitsschutz und Arbeitsmedizin

□ 일시 및 장소 : 2016. 9. 16(금), 10:00 – 13:00, DASA 회의실

□ 외부 참석자 : Dr Andreas Süßmilch

□ 주요 논의 내용

○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독일 연방노동사회보장부에 권고하는 정부 연구기관으로 여성을 특별히 고려한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업장의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서 서비스 부문 고용이 증가하고 직장에서의 빈번한 스트레스 문제에 따른 근로자 친화적 예방 조치가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주어져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분야 연구들이 추진되고 있음.

- 병원, 케어센터, 등에 종사하는 돌봄 분야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들이 의미 있는 공동 연구 분야 가능성 높음.

- 케어복지 종사자들이 육체에 많은 스트레스, 특히, 노인병동 간호사들이 환자들을 많이 옮겨야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육체적 스트레스 있음. 육체적인 작업이 주는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서있는 작업, 무거운 하중을 들어 올리고 운반하는 작업, 강제자세(교정체위)(forced posture) 작업 등임. 예를 들어, 노인 병동 간호사들은 일반 노동자 (21%) 보다 3배나 더 많이 “무거운 하중을 들어올리고 운반하는 작

업”을 하는 것(72%)으로 보고하고 있고, “강제자세작업“도 일반 노동자들은 16% 경험하는 데에 반해 노인 병동 간호사들은 44%가 경험하는 등.

- 특히, 돌봄 분야의 특성상 작업 양에 대해서 근로자와 근로자, 근로자와 고객 간의 의견조율 가능성, 주어진 작업 순서를 변경하거나 계획할 수 있는 가능성, 언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권 등에 대한 연구가 심화될 필요 있으며 BAuA의 축적된 데이터와 KWDI의 여성 근로자에 건강 등에 대한 연구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BAuA는 국가적·국제적(유럽 및 국제 위원회 등)으로 다른 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근로여건 분야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일터에서의 생화학 물질에 대한 신종 노출 및 노출 증가 경향에 대한 관심이 확대 되고 있음. 레이저 방사능으로부터 눈 안전, 유해물질위원회가 제안하고 있는 발암 물질 관련 연구들도 추진되고 있음. 해당 분야는 양국의 근로 환경과 법제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임신 또는 가임기 여성에 대한 연구 분야는 두 기관이 특화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정보통신기술(ICT)의 증가와 새로운 노동 패턴의 등장이나 구조조정이나 초과 근무시간이 주는 심리적, 사회학적 불안 요소와 작업 장 내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추후 지속 협의의 필요함. 한국에서 장기 근무 시간 또는 초과 근무 시간은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무직 근로자의 야간 근무와 직업 성과를 포괄적 분석할 필요 있다는 점에 공감.
- 특히,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같이 작업하는 것이 능력치의 한계까지 일해야 하거나 마감 기한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 보다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 등을 성별 특성에 따른 연구 기획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작업장 환경 조성 등에 활용할 방안 등



□ 일시 및 장소 : 2016. 9. 16(금), 10:00 - 13:00, DASA 회의실 및 전시장

□ 외부 참석자 : Director Gregor Isenbor

□ 주요 논의 내용

○ 1993년 개관하여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전시물은 직접 체험하거나 실제작동 되도록 구성, 또한 게임요소 가미하여 관람객들이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체험형 안전 교육은 각종 위험 대응 능력을 신장시킨다는 점에서 중요

- 독일연방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연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 즉, 실제 위험을 인식하거나 위험 요인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조사 또는 실험 연구 결과를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또는 직접 만지거나 측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안전 위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디자인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어떻게 다른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 예를 들어, 산재환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첨단 재활기구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가구 내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목욕시설, 부엌, 주방용품 등의 설치로 이어질 수 있음.

- 과거, 현재 및 미래의 직업세계를 감각적으로, 쌍방향 모드로 체험하도록 하면서 관련된 작업의 안전사고와 건강상 유해한 요인들을 실제적이고 놀이 같은 방법으로 습득하도록 교육 추진될 때 교육 효과 큼

○ 제조업 중심의 2차 산업 작업환경을 기준으로 한 작업장 안전 개념으로는 대다수 서비스업 여성노동자의 비가시적인 불이익이나 위험을 작업환경의 예방조치 내용 안에 적절하게 포함하지 못할 수 있음.

- 여성과 가족 특화 안전 교육을 위해서 여성들이 다수 일하고 있는 직종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위험 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작업장 디자인 개발 필요.

- DASA가 보유한 인간공학을 가미한 슈퍼마켓 계산대(조명, 소음, 방음장치), 인간공학적 문제 대두에 부응하는 사무환경(pc Table, 책상, 의자)과 같은 전시실 운영 프

로그램에 대한 벤치 마킹 및 한국 여성 근로자의 신체적 여건에 대한 자료 축적 등의 필요성 공유



III

주요 성과 및 후속 조치

-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지역 사회 돌봄 관련 기관 연계 모델의 다양화를 통한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방안
 - 일·가족 양립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가족 지원이 필수이나, 어린이집, 상담, 자조그룹, 가족교육, 지역카페가 한 장소에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으로 돌봄 기관의 여건과 역량에 따라 다양한 연결망 통해 영유아 돌봄뿐만 아니라 가족상담, 교육, 치료, 자조모임 등 다양한 포괄적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연계망 구축 필요
 - 돌봄, 산후도우미, 돌봄, 가족 상담과 교육, 자조그룹, (직장 내 어려움에 대한)심리 치료, 장애아동 특수교육, 지역 주민 교류 위한 지역카페 등을 포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모델 연구 과제 개발
 - 수십 년간 지역에 흩어져있는 아동 및 가족 관련 서비스 지원기관, 사업, 프로그램의 연계 협력 경험 있는 Familienzentrum Mehringdamm과 Kita Kastanienallee 사례에 대한 분석자문 확보와 연구·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 Pestalozzi-Froebel-house와 공동 연구 및 MoU 체결 검토

- Pestalozzi-Froebel-house 뉴스레터에 한국 가족 지원 정책 사례 홍보 추진 검토
- 201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 컨퍼런스 등에 독일 정책 사례 관련 Pestalozzi-Froebel-house 연구진 초청 검토

□ 모든 형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원하는 여성 안전 정책 개발을 위한 메타 분석 연구 기획 및 서비스 모델 발굴

-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 이외에 직장가정 및 각종 관계에서의 폭력 예방, 여성의 사회적 역할로부터 비롯된 불안, 우울증, 피로감, 스트레스 등의 정신 건강, 여성의 노동현실과 경험을 충분히 반영한 작업장 안전 프로그램 및 디자인 등이 개발되어야 함
- FFS의 임파워링 프로그램과 구직 및 고용과 부채, 주택 제공 등의 피해자의 재정 문제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 사례 및 지원 기관들 간 네트워크 구성 효과의 국내 확산 필요성
- 여성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등 사회 심리적 위험요인을 포함한 작업 관련 건강 위험요인 및 사회서비스업 종사자 노동 강도와 업무 디자인 관련 BAuA와 공동 연구 추진 기획
- 남성 위주로 설계된 물리적 작업환경에 처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 관련 후속 연구 기획